

오라클, “2014년 미들웨어시장 1위 도약”

‘엑사로직’ 성장세 탄력... 시장 공략 강화



한국오라클이 ‘엑사로직’을 국내에 선보인 지 1년, 5군데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내년부터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미들웨어 시장 1위 의지도 재차 강조하는 등 한국오라클이 이 시장 공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오라클은 작년 11월 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미들웨어 머신인 엑사로직을 국내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오라클이 인수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하드웨어에 오라클의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다. 오라클에 따르면, 엑사로직은 지난해 말 국내에 출시된 이후 현재 다섯 군데의 대형 사이트에 납품됐다. 한국오라클은 이들 고객사 외에 현재 다양한 곳에서 사전기술 검증(PoC)등을 진행 중이라 내년부터 고객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심명종 한국오라클 전무는 “엑사로직은 다소 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성장세가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월등히 높다”며 “국내 시장도 내년부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오라클에서 미들웨어 사업을 총괄하는 강신영 부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2014년(회계연도)까지

두 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신영 한국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부사장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은 지난 5월 끝난 회계연도 2012년 미들웨어 매출을 집계한 결과 한국 시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성장률 1위를 차지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2012~2014년(회계연도) 동안 미들웨어 분야에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첫째가 지난 현재,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 부사장은 강조했다. 목표의 1/3이 지난 현 시점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거뒀다는 것이다.

한국오라클이 생각하는 미들웨어의 성장동력은 비(非) WAS 제품군이다. 강 부사장은 “WAS는 현재 성숙한 시장으로 오라클은 이 분야에서 1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WAS를 제외한 웹센터(포털), 모바일, 엑사로직, 코히어런스 등을 통해 급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다 IT시스템 도입이 빠른 호주의 경우 현재 오라클 WAS제품의 비중보다 다른 제품의 비중이 훨씬 크다. 강 부사장은 3대 7 정도라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호주의 경우를 볼 때 비WAS 분야의 성장 여력이 크다”면서 “장기적으로 미들웨어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11.08, 디지털 데일리
한국오라클 퓨전미들웨어사업부,
강신영 부사장

Da 디지털데일리

한국오라클 "미들웨어 성장률, 한국이 1위"

2012년 11월 08일 18:00:00 | www.daaily.co.kr

[디지털데일리 실행기자] "지금까지 미들웨어 시장은 AWS(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승이었습니다. 그러나 AWS를 제외한 다른 미들웨어 제품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오라클에서 미들웨어 사업을 총괄하는 강신영 부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2014년(회계연도)까지 두 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에 따르면, 한국오라클은 지난 5월 끝난 회계연도 2012년 미들웨어 매출을 집계한 결과 한국 시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성장률 1위를 차지했다.

강 부사장은 앞서 2012-2014년(회계연도) 동안 미들웨어 분야에서 두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첫 해가 지난 현재,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 부사장은 강조했다. 목표의 1/3이 지난 한 시점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거뒀다는 것이다.

한국오라클이 생각하는 미들웨어의 성장동력은 비(非) AWS 제품군이다. 강 부사장은 "AWS는 현재 강력한 시장으로 성장률은 이 분야에서 1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AWS를 제외한 웹컨텐츠(포털), 모바일, 역사로직, 클라우드 등 다양한 신규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다 IT시스템 도입이 빠른 초중의 경우 현재 오라클 WAS제품의 비중보다 다른 제품의 비중이 훨씬 크다. 강 부사장은 3대 7 정도라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초중의 경우를 볼 때 비AWS 분야의 성장 여력이 크다"면서 "장기적으로 미들웨어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기자js@daaily.co.kr

디지털타임스

2012년 11월 09일 **금요일 006면 전체**

오라클 "2014년 미들웨어시장 1위 도약"

'역사로직' 성장세 탄력... 시장 공략 강화

한국오라클이 '역사로직'을 국내에 선보인 지 1년, 5군데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내년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미들웨어 시장 1위 의지도 재차 강조하는 등 한국오라클이 이 시장 공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오라클은 8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미들웨어 대신인 역사로직을 국내에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오라클이 인수한 번 마이크로시스템즈의 하드웨어에 오라클의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다.

한국오라클에 따르면, 역사로직은 지난해 말 국내에 출시된 이후 현재 다섯 군데의 대형 사이트에 납품했다. 한국오라클은 이를 고객사 외에 현재 다양한 곳에서 사전 기술검증(POC) 등을 진행중이라 내년부터 고객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심명종 한국오라클 전무는 "역사로직은 다소 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성장세가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윌렘이 높다"며 "국내 시장도 내년부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지난 9월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라클 오픈 월드 2012'에서 역사로직의 새로운 버전인 오라클 역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X3-2를 발표했다. 한국오라클은 오픈월드에서 소개된 이 제품을 국내에도 적극 알리고, 역사로직을 기반으로 국내 미들웨어 시장 리더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강신영 한국오라클 부사장은 "오는 2014년에는 국내 미들웨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dubs@

2012.11.08, 아이뉴스24
한국오라클 퓨전미들웨어사업부,
강신영 부사장



아이뉴스24 뉴스

오라클 역사로직 2세대 출시, '성능은 향상, 가격은 동일'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최적화 및 개발 환경 제공

2012.11.08 18:00:00

[김지선기자] 한국오라클이 엔지니어드 시스템 중 미들웨어 제품인 역사로직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역사로직 X3-2는 클라우드, 모바일, 웹서버, 성능 면에서 다 개선했지만 이전 버전과 같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한국오라클은 8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고 성능과 구축 최적화를 넘어 혁신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에 최적화시킨 역사로직 X3-2를 소개했다.

미들웨어는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통한 다른 시스템들 연결을 주는 IT스택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관리를 책임지는 부분이다.

이같은 미들웨어 분야에서 오라클이 현대이코노미시스템즈 인수 이후 개발된 역사로직을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과 오라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향상, 빅데이터와 같은 고객사의 안전화를 위해 만든 제품이다.



© 한국오라클 퓨전미들웨어사업부

역사로직은 컴퓨팅 파워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등이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된다. 이같은 제품 모델은 각 부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고객은 IT인프라에 대한 고민없이 오라클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역사로직에는 내부 커널인 '웹서비스'와 소라클 소프트웨어인 빅서도, 클라우드, 모바일 등 통합되어 탑재되어 있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웹서비스 디렉터리와 역사로직 콘솔관리 등도 결합해 있다.

특히 이번 역사로직 2세대 버전에서는 역사로직을 구동 시키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오라클 역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2.0이 탑재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핵심 시스템과 인프라 서비스(baaS)에서 대규모의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역사로직 X3-2는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성능프로파일(PP) 가상화 및 커브 가상화 기술도 적용했다. 이전 버전에서 2.9배(리눅스)의 CPU/메모리 사용량도 지원했던 게 최대 7.7배까지 향상된 애플리케이션 구축 최적화를 통해 60%까지 증가시켰다.

이와 함께 최신의 인텔 코어 제온 프로세서를 탑재해 기존 버전 대비 3.5배 가량 애플리케이션 CPU 코어보다 30% 더 많은 구성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480개까지 지원했다.

"역사로직은 역사데이터보다 출사가 높여 전 세계 43개국 22개 언어, 성장률은 역사데이터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높은 소비자 만족, '최상의 기술'을 적용한 역사로직을 통해 고객들은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의 복잡성을 한층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신영 부사장은 강조했다.

www.oracle.com | 02-777-0824



2012.11.09, 디지털타임스
한국오라클 퓨전미들웨어사업부,
심명종 전무